

# 젠더 정치와 민족간 위계만들기

— 『처녀지』, 『초원』, 『대륙』 —

이 선 옥\*

1. 머리말
2. 민족주의 서사와 '여성' 범주의 재규정
3. 남녀 계몽구조와 민족간 위계만들기 - 『처녀지』
4. 제국남성의 구원신화와 민족간 위계의 자연화 - 『초원』
5. 남녀 계몽구조의 역전과 민족간 위계흔들기 - 『대륙』
6. 맺음말

---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의 민족주의 담론과 제국주의 담론의 동일성과 차이를 분석하려는 글이다. 여성성의 재규정을 분석하여 동일성과 차이를 밝히려 하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립쌍은 가장 오래된 비유로 민족간 위계만들기를 자연화할 수 있는 대표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서사가 여성성의 재규정을 둘러싸고 담론적 경쟁을 하는 현상도 민족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여성성의 재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국주의 담론의 철저한 모방이라 할 수 있는 친일문학과 그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는 작품을 비교하여 여성성의 재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친일문학의 경우 이기영의 『처녀지』는 남녀계몽구조로 민족간 위계만들기를 서사화하였다. 또한 한찬숙의 「초원」은 제국남성의 구원신화로 제국주의를 구원자로 비유해냈다. 그 반면에 한찬숙의 「대륙」은 남녀 계몽구조를 역전시켜 민족간 위계를 흔드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차이들을 세밀히 분석해가면 식민지 민족주의 서사에 드러나는 동일성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젠더, 민족주의, 친일문학, 만주국

## 1. 머리말

민족(주의)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식민지를 여성성으로 비유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담론들이 여성을 추상화하고 식민화하는 서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식민지의 민족주의 문학에서 동일하게 모방되는가 아니면 식민지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낸다.

먼저 식민지의 민족주의 담론과 제국주의 담론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예로는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여성문학연구 제7호, 2002.6), 최정무 「민족주의와 젠더의 구성」(엘레인 김, 최정무 편,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한국여성학 10집, 1994)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의는 각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탈식민 페미니즘론의 관점에서 여성의 이중 식민화 현상을 분석하고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명아와 김은실은 민족주의 담론이 단일하고 총체적인 서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여성(성)을 동원하는가를 보여준다. 민족주의 담론은 여성을 삶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민족의 희생 혹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기표로 추상화하는 지배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최정무는 식민지배자의 논리를 모방하게 되는 식민지 남성의 욕망을 분석하고 있다. 식민지 남성은 훼손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식민지배자의 위치를 채택하게 되고, 그러한 모방<sup>1)</sup>의

과정에서 자기 종족의 여성 주체를 '담론적으로 지배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권력화라는 측면에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담론의 동질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근대계몽소설과 친일서사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남성 주체의 계몽의 서사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 논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을 열등화하고 담론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제국 혹은 민족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번역서지만 페미니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9)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족주의의 남성적 공모관계를 실제의 이해관계에서 설명하는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1925년 실시된 일본의 보통선거법에서 재일 조선인이나 대만의 남성은 일본의 신민 남자 속에 포함되었지만 일본의 여성은 배제되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국가의 형성에는 계급과 민족을 넘어선 남성들 간의 평등한 공동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질성을 설명하는 관점은 민족주의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의 차이나 다양한 민족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민족주의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담론에서 민족 문제와 젠더 정치가 결합할 때 젠더에 대한 억압이라는 동일성의 측면이 있지만, 민족 간의 차이에 따라 젠더 정치는

1)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족주의의 동질성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주로 호미 바바(Homik. Bhabha)의 모방(mimicry)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전혀 다른 상황과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식민지시기 일본과 조선, 남양군도의 여성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여성운동가들을 매료시켰던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이 최하층의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식민지 여성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sup>2)</sup>

그러므로 민족 문제와 젠더 정치의 결합상을 쉽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각각의 역사적, 정치적 사건으로 따져보며, 이 사건의 상황과 효과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조운 스콧의 주장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의 이념이 수많은 서사를 통해 형성되고, 그 서사 속에서 권력의 각축을 벌여 왔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더라도, 선부른 결론보다는 어떠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어가는가를 각각의 서사들 속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여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의 차이를 해명하려는 시도로는 다음의 논의들을 들 수 있다. 김영희 「여성, 민족, 그리고 문학에 관한 몇 가지 단상」(여성문학연구 제9호, 2003.6),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실천문학, 2003.봄), 김양선 「식민시대 민족의 자기구성방식과 여성」(한국근대문학연구 8호, 2003.10),

---

2) 알제리 여성의 베일을 둘러싼 논쟁도 식민지와 제국주의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알제리 여성이 베일을 벗는 행위는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 통치의 한 방식으로 베일을 벗기는 순간 식민지에 대한 강간의 행위를 상징하게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다시 베일을 쓰는 여성들이 늘어나지만 서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가부장제로의 퇴행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는 과정마다 그 정치적 의미가 변화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띄고 있었다고 샤펀리 화이팅은 분석하고 있다. T. Denean Sharpley-Whiting, "Colonialism, Nationalism, and Fundamentalism: Liberating Algeria", *Frantz Fanon: Conflicts & Feminis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3장, pp.53~60.

이선옥 「우생학과 제국주의의 성정치」(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출판사, 200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민족주의 담론에서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이 제국주의적 남성중심의 서사를 모방하면서도 균열적인 부분이 드러남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균열적 서사라는 모호한 분석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민족주의 서사들간의 동질성과 차이를 어떻게 분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전시켜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 2. 민족주의 서사와 ‘여성’ 범주의 재규정

민족주의와 젠더가 결합하는 방식에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 범주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라는 범주의 생산<sup>3)</sup>은 민족주의의 성격 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을 감성과 비합리성, 비문명성으로 규정하여 이등 국민으로 배제(선거권에서의 배제했던 예가 대표적이다)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성성을 식민지민들의 성격과 대응시켜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기도 한다(여성적이기 때문에 인도인이나 흑인이 성숙한 남성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논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열등성의 반면에 여성은 변하지 않는 전통의 담지자로서 민족혼의 비유로 신비화되기도 한다. 특히 후발로 근대적 발전에 합류하

3) 조운 W. 스콧,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성찰」, 배은경 역(여성과사회 13호, 2001 하반기), pp.224~227 참조. 이 글에서는 여성의 범주 생산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며, 이 사건의 상황과 효과들을 따져보는 일이 페미니즘의 관심 범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게 된 동양의 경우 직선적인 발전의 논리 속에서 안정된 민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민적 권력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내적 영역의 형성'이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는 민족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 정신'을 만들어 낸다. 일본이나 중국, 조선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동양적 정신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은 서구 제국주의와의 경쟁에서 불안해진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서사적 반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절대 정신은 무한 경쟁의 주체가 된 남성이 아닌 타자인 여성이 맡게 된다.<sup>4)</sup> 근대 초기에 남성에게는 '단발'(斷髮)이 강제되고 여성의 단발이 금지 혹은 비난거리가 되었던 현상은 이러한 이분법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여성은 '단일하고 순수한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성 범주의 생산이 민족의 내적 영역의 형성과 관련된다면, 또 하나의 축은 재생산 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규정이다. 여성은 전통의 담당자일뿐만 아니라 출산, 양육, 노동력 재생산 등 재생산 영역의 물질적 기초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이념 등을 통한 재생산 영역에 대한 규정은 개인과 국가 권력의 관계, 즉 개인에 대한 국가적 동원 혹은 통제의 관계를 볼

4) Prasenjit Duara, "Of Authenticity and Woman: Personal Narratives of Middle-class Women in Modern Chin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June 2~4, 1995, Berkeley, California, pp.11~12. 자본주의적 민족주의는 반식민지론에 의해 정당화되었고, 이러한 반식민지론은 역설적이게도 정신적 우월성과 남성성의 보존, 그리고 여성의 순결함을 강조하게 된다. 왜냐하면 서구의 물질적 힘에 대한 식민지 남성의 은폐된 욕망이 스스로를 열등화하는 논리에 휘말리게 하고, 그러한 식민지 남성의 열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남성성을 강화하고 민족 전통을 신비화(정신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때 여성의 몸은 '단일하고 순수한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규율화 되는데, 남성 주체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무엇'이 된다. 그리하여 여성은 민족의 어머니 혹은 창녀라는 이분화된 이미지로 지배된다.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인구에 대한 통제나 국민의 질의 문제, 어떠한 성격의 국민을 양육하는가의 문제 등 각각의 개인을 어떻게 국민으로 형성할 것인가는 여성과 가족에 대한 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여성을 통해서 욕망, 사랑, 결혼, 이혼, 가족관계 등등의 개인적 컨텍스트로 재해석된다는 측면이다. 19세기 애국계몽기에 이르러 여성이 ‘어머니’로서 공적인 담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개인을 어떻게 국민으로 생산해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범주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는 그 민족주의의 성격과 민족의 동질성을 형성하기 위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읽어낼 수 있는 실마리이며, 또한 개인의 삶에 대한 정치적 동원 혹은 통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여성 범주의 형성은 단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론과의 복잡한 투쟁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선택, 배제의 과정들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인 작업으로 제국주의 담론이라 할 수 있는 친일작품과 비협력의 작품을 비교하여 민족 문제와 젠더 정치가 결합하는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말기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민족간 위계만들기에 남녀관계가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대상 작품은 이기영의 『처녀지』와 한찬숙의 「초원」, 한설야의 「대륙」이다. 세 작품 모두 1940년 전후의 만주를 배경으로 만주 개척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남녀의 결합을 통해 계몽의 관계를 비유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들은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처녀지』)과 짧은 단편(「초원」), 그리고 중편(「대륙」)이어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작품의 성취도나 수준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세 작품이 만들어내는 민족간 위계만들기와 여성 범주의 규정이 작동하는 방식만을 본다면, 젠더 정치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젠더 정치의 차이를 통해 민족간 위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논리와 그에 저항하는 논리의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 3. 남녀 계몽구조와 민족간 위계만들기- 『처녀지』<sup>5)</sup>

이기영의 해방전 마지막 작품인 『처녀지』는 조선인 의사가 만주 개척 마을에서 계몽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생학’ 이론을 소개하면서 제국주의의 위생 담론에 동화되어간 특이한 작품이기 때문이다.<sup>6)</sup>

줄거리는 의사인 주인공 남표가 정안둔이라는 만주의 개척마을에 들어가 생산증대와 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은 페스트에 감염되어 죽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기적이고 무지한 농촌사람들을 깨우친다는 농촌계몽소설의 전형적인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헌신적 정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간호사 신경아가 그의 유지를 이어가게 된다는 결말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남녀의 계몽구조이다.

먼저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주인공 남표로 그는 ‘의료보국’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주의 정안둔<sup>7)</sup>으로 온 인물이다. 그는 과

5) 『처녀지』는 1944년 9월 상, 하권으로 삼중당서점에서 발간된 작품이다. 27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730페이지에 달하는 장편소설로 이기영이 해방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친일 소설이다.

6) 우생학의 관점에서 『처녀지』를 분석한 부분은 좋고, 「우생학과 제국주의의 성 정치」(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출판사, 2003) 참조.

학을 매개로 만주의 무지와 가난을 계몽하겠다는 의지를 설파한다.

우선 의료사업만 보더라도 다만 그들을 무료로 치료만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 그보다도 그들에게는 위생사상이 발달해야 된다. 그런데 위생적 지식을 그들에게 보급시키자면 학문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황무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오직 그것은 과학적 지식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하, p.398)

남표가 의료적 지식을 전파하는 의사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만주국이 아편금지를 중심으로 위생국가를 표방하면서 급속하게 국가적 통제를 형성해갔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남표가 의사로서의 소명을 펼치기 위해 만주의 농촌으로 가는 설정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생활을 찾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만주로 떠나왔으나 차츰 “현시국 하에서 이기주의적인 낡은 사상을 떠버리고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의료보국(醫療報國)을 투철히 할 생각”(상, p.60)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개척촌인 정안둔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의료적 지식을 매개로 만주국 국민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을 만들어

---

7) 전쟁말기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민중동원이 필요했던 만주국 정부는 둔(屯) 단위의 농촌에 대한 행정지배력이 중요함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1943년 12월에 「村건설요강」을 정하고, 지방행정의 운영을 시정하려고 생각했다. 街村制에서는 행정촌을 단위로 명령침투를 행했지만, 이것으로는 행정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村보다, 그 아래의 농민의 생활단위인 屯에의 개입이 요청되었다. 농산물의 증산, 노동력의 공출, 생활 필수물자의 배급 등, 지방행정의 중요문제는 모두 屯을 기점으로 행해지게 되고, 屯을 장악하지 않고 전신체제의 확립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村건설요강해설」 『협화운동』 6권 2호, 1944년) (塚瀬進, 『滿洲國-民族協和の實像』, 吉川弘文館, 1998, pp.58~59).

가는 과정은 '위생관념'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의 규율화와 우생학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간 위계만들기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뒤에 한찬숙의 「초원」을 분석하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남성주인공이 이러한 의료지식을 전파하는 과학과 문명의 매개자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주인공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지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조선인은 만주국에서 일본인 다음인 2등 국민으로 대우받았는데, 조선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조선 민족의 서열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조선 민족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매개민족'이라는 관점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대만의 친일 작품도 의사와 같은 전문가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8)</sup>

주인공 남표가 만주에서 해내는 계몽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일본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만주인과의 관계 설정을 보면, 계몽자로서의 위치가 뚜렷해 보인다. 어느날 그는 만주인 마을 '진가둔'에 왕진을 가게 된다. 만주인들은 구습에 젖어 있어서 서양 의술을 펼치는 '신의'를 두려워하는데, 남표가 위급한 산모를 구해내고 치료비도 받지 않자 감격해한다. 조선인이 만주인의 계몽자로서 설정된다는 것은 그가 식민지 조선인이 아닌 문명의 전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펼치는 일은 아편중독자를 치료하는 일이다. 남표를 무고하게 신고했던 박만용이 아편중독자로 밝혀지며, 그를 돕겠다는 남표의 마음에 만용이 감동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서사화

---

8) 2005년 6월 버크셔 세계여성사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을 때 대만학자들과의 토의에서 알게 된 내용이다.

되지는 않았지만 아편중독의 문제가 장황하게 서술되고 한 때 아편중독이었던 남표의 과거와 그의 갱생과정이 다루어지고 있다. 아편금지의 중요성은 만주국에서 실제 일본의 행정적 구울력을 만들어내는 데 아편금지 정책이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도 아편금지가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만주는 옛날 만주가 아니다. 오늘날 왕도락토를 건설하는 황국신민 중에는 이와 같은 정신적 타락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상, p.350)는 남표의 신념을 통해서 그러한 일본의 정책적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남표의 계몽자로서의 성격은 야학에서 벌이는 여성 계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의 여성계몽은 위생관념과 우생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량한 자녀를 많이 두는 모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에 -그럼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은 현모양처를 이상으로 삼는데 무엇보다도 여자는 모성(母性)으로서 가장 현량한 부덕을 가추어야 하겠 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고 간에 부국강병이 되려면 훌륭한 자녀를 많이 낳고 또한 잘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량한 자녀를 많이 두려면 그것은 전혀 모성에게 달린 줄 압니다. 바귀서 말하면 훌륭한 어머니가 많아야만 훌륭한 자손을 많이 둘 수가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다행히 출생률이 매우 좋다는데 그것은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면 거의 배에 가깝다합니다. 그래서 문명국으로서는 우리 일본이 제일 생산을 잘하는 편으로 이것은 여러분의 매우 자랑꺼리인 줄로 생각합니다.(하, p.403)

“여자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의 일분자요 사회의 성원인 만큼 그들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p.416)고 강조하면서 우량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유전우생학’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개한

다. 독일의 유전결혼상당소와 단종법 등을 소개하고 건강한 국민을 낳아야 하는 중요성을 “건민(健民)이 되지 않으면 건병(健兵)도 될 수 없다”(하, p.404)는 병사충원 정책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반도인들의 허약함이나 위생관념의 부족 등이 강조되어 자연스럽게 내지의 어머니들이 우월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남표의 계몽자로서의 지위는 그의 애인 신경아와의 계몽관계로 비유되어 서사적 힘을 얻게 된다. 남표의 현신적 품성과 문명화에 대한 신념은, 신경아를 정신적 삶으로 이끌고 사회적 모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계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자란 본래 ‘수동적’이라 “육체적 유혹은 고상한 정신”(하, p.624)을 흐리게 만들지만 ‘자기희생’적인 남표의 죽음으로 감화를 받고 진정한 사회적 모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 계몽관계의 특징은 남표가 일본의 특수한 대리자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남표와 신경아 모두 조선인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남표의 정체성이 식민지 조선인이 아닌 일본 정책의 매개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일본과 조선의 계몽관계를 비유하게 된다. 여성성이 수동성과 나약함, 이기심으로 규정되는 것도 계몽관계의 우열을 뚜렷이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전략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계몽관계는 서사적으로 아직은 불안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계몽의 내용들이 서사로 녹아들지 못하고 연설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만주 계몽과 삼각연애가 불균형하게 서사화된 부분들이 그러하다. 작품의 미숙성인지 의도적인 균열인지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기영의 역량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내면화<sup>9)</sup>되지 않은 의식적 균열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고향』에서 농촌 계몽의 내용을 남녀의 삼각관계와 계몽

구조로 비유하는 뛰어난 작품을 보여준 바 있는 이기영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작품의 미숙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4. 제국남성의 구원신화와 민족간 위계의 자연화 - 「초원」

한찬숙<sup>10)</sup>의 「초원」은 만주에서 발행된 작품집 『싹트는 대지』<sup>11)</sup>에 실린 작품으로 만주국의 오족협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협화미담이다. 오족협화는 만주에 거주하는 한족, 조선족, 일본족, 몽골족, 만주족 등 오족의 화합을 통해 왕도낙토를 이룬다는 만주국의 국책 이념이었다.<sup>12)</sup> 이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만선일보는 협화미담 공모를 하는데, 조선인과 일본인, 조선인과 만주인의 화합을 다룬 작품들이 발표된다. 그러나 표면적인 협화와는 달리 이 작품들은 일본의 우월성을 담론적으로 확보하고 각 민족간 위계만들기가 진행된 작품들이었다.

- 
- 9) 최정희의 「야국초」가 구성적 완결성을 보이는 것과 대비시켜 생각해보면, 이 기영의 경우는 균열의 징후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
- 10) 한찬숙은 만선일보에서 주최한 협화미담 공모에 3등으로 당선된 작가인데, 『싹트는 대지』에 실린 작가 연보에 의하면 간도일본총사령관에 근무하다 만주국 관리가 된 인물이다. 당시 간도성 왕청현실업과장으로 되어 있으며, 작품집 후기에는 그가 『싹트는 대지』의 출판에 경비도 주선해 주고 편의를 보아주었다는 감사의 말이 실려 있다.
- 11) 『싹트는 대지』는 만주 신경 소재의 만선일보사 출판부에서 1941년 11월 15일에 발행된 소설집으로 염상섭의 서문과 편집자인 신영철의 발문, 그리고 7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중국조선족 문학사료 전집 제5권』(연변인민출판사, 2001)에 실린 작품집을 사용하였다.
- 12) 협화미담에 대해서는 줄고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갈등과 친일의 길」, 『재만주 재일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역락출판사, 2004 참조).

「초원」은 짧은 작품이지만 주인공의 성격이나 인종간의 위계, 남녀 관계 모두 특이한 작품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 림봉익은 평남 안주 태생으로 축산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온 사람이다. “몽골땅의 미개한 민족을 지도하기 위하여 자청”(p.584)하고 들어온 그는 기공서 축산주임으로 열성을 다한다. 가축들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마을 사람에게 약을 주는 등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마을을 구해내, 사람들도 그를 ‘구주(救主)요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르게 된다. 그는 파잉콜 구장의 딸 마루도와 사랑하게 되지만 개인의 사랑보다는 몽골 계몽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머뭇거린다. “언제나 나 하나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만주국내 흥안사성에 있어서 원시적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몽골 민족을 위하여 내 한 몸을 아낌 던질 마음엔 이러한련애의 감정에 붙들린다는 것처럼 맹랑한 것이 없다”(p.587)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파잉콜 마을에 활불(라마교 승려)이 들어와 마루도는 활불에게 정조를 바쳐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이들이 몽골 마을에 입히는 폐해가 심각한데도 활불이 몽골에서 지니는 세력은 절대적이며, 활불에게 정조를 바치는 것도 명예로 여기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봉익을 사랑하는 마루도는 마을에서 도망쳐 나와 그를 찾아 나선다. 죽음을 각오하고 벌판을 헤매던 그녀는 우연히 봉익이 타고 다니던 기공서자동차를 만나게 되고, 운전수의 도움으로 봉익에게로 달려간다.

이 작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조선인 림봉익이라는 인물이다. ‘동리의 구주’라 불리는 그는 몽골의 원시적 생활을 문명화하는 계몽자로 등장한다. 그가 가축의 전염병을 막고 마을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의학과 과학의 힘이다. 예방주사와 위생지식을 전파하고 자동차와 서양옷, 카라멜 등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문명의 매개자이기 때문에 마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그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의 정체성은 식민지 조선인이 아니라 반도 출신의 황국신민이 된다. 조선 민족의 고뇌 대신에 황국 신민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본인 혹은 그 대리인이 문명의 전파자이자 계몽자로 등장하는 친일소설의 서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예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처녀지』도 동일한 논리를 보이지만 과학의 힘이 절대적 지배의 논리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원」이 더욱 철저한 위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을 매개로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계몽 혹은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본의 우생학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종개선학'(人種改善學)으로 번역된 우생학은 나치의 우생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인종간의 우열을 과학화하여,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대표적 기제로 작동한다. “대체로 우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의 토지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식민지배의 논리<sup>13)</sup>에서 우등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은 문명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며, 이 문명화의 정도는 과학적 지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등한 인종의 문명 전파라는 측면에서 식민지 지배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특히 분리, 감금, 단종으로 배제시키는 열등한 형질이 유전적 질환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식민지민들을 자연스럽게 열등한 인종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빈민, 실업자, 불량아, 게으름까지 정신병적 경향으로 분류되는<sup>14)</sup> 기준에서는 일본인에 비해 식민

13)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 연구』(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8), p.114.

14)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



지 조선인이, 조선인에 비해 몽골인이 도태되어야 할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림봉익과 몽골 처녀의 사랑 역시도 남성적 제국주의와 여성적 식민지의 결합이라는 전형적인 비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만주국민’이면서 ‘황국신민’이라는 조선인의 독특한 위치<sup>15)</sup>에서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의 대리자로 등장한 것이다. 조선인이 황국신민의 위치가 될 때 만주인-한인이든 몽골인이든-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민족의 위치에 서게 된다. 조선인 주인공이 남성적 계몽자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대리자로서 만주인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초원’과 『처녀지』의 공통점이라면 만주를 계몽하는 매개적 인물로 조선인이 설정<sup>16)</sup>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의학과 과학을 전파하는 전문가로 설정되었다는 점도 동일하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황국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될 때 상대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드러나는데, 민족적 정체성보다 문명화된 지식의 전파자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권력적인 민족주의가 식민 지배의 논리를 젠더의 관계로 치환시켜 자연화시키는 전략을 서사의 특징으로 삼는다는 점도 유사하다. 민족간의 우열을 마치 생물학적인 본성처럼 그려내기 위해 젠더 정치가 서사에 동원되는 전형적이 예라 할 수 있다.

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p.215.

15) 金榮秀, 「血緣的 一體 完成코 國家와 興亡을 가치하라」(만선일보, 1940.1.1).  
 16) 朝鮮을 만주국 지배의 ‘매개민족’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를 보면, “내지인 자신이 일본정신 국체 운운을 설명하는 것보담도 조선인을 통하여 대륙병참기지로써 손색없는 약진 조선의 현실을 실례의 근거로 대변적 입장으로써 설명하는 것이 대륙인 그들의 심정을 감동시키기 용이하다”(陸軍小將 金子定一, 「재만조선인에 畜養-제만조선계의 입장(下)」, 만선일보, 1940.1.3)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은 남녀의 계몽관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조선인 남녀관계를 다루는 『처녀지』의 경우는 계몽관계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계몽 변화된다는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초원』의 경우는 제국의 남성이 식민지 여성을 구원하는 구원신화를 기본 구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남성이 계몽자로 등장하는 제국주의적 모방서사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후자에 이르면 제국 남성에 의한 식민지 여성의 구원이라는 서사적 비유형태로 훨씬 더 권력적인 위계만들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 5. 남녀 계몽구조의 역전과 민족간 위계 흔들기 - 「대륙」

한설야의 「대륙」은 『국민신보』(1939.6.4~9.24)에 발표된 일본어 소설이다.<sup>17)</sup> 분량은 중편소설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꽤 장기간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작품 역시도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 개척을 이상으로 삼는 젊은이들의 성장과 사랑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앞의 작품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앞의 두 작품과 비교해 보면 한국, 일본, 만주의 위계만들기를 의도적으로 흔들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인 일본인 오야마 히로시(大山博)와 중국인 처녀 마려의 사랑 이야기도 제국의 남성과 식민지 여성의 결합이라는 표면적인 서사의 방식이 구원관계나 계몽관계가 조금씩 뒤바뀜으로 해서 제국주의적

17) 이 글에서는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김재용 외 편역, 역락출판사, 2003)에 실린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서사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설야의 경우 국제결혼과 연애 문제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다룬 작가라 생각되는데, 또 다른 일본어 소설 「피」(『국민문학』, 1942.1)와 「그림자」(국민문학, 1942.12)를 예로 들 수 있다. 조선 남성과 일본 여성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이 작품들에서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피속에 있는 것”(p.186)이라는 민족적 차이에 대한 강한 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랑이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가 아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은 「대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인 처녀가 일본인 남성에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열등감과 거리감을 마려를 통해 드러내는 부분이 그러하다. 마려는 “이국 사람이고 약하며 비문명국 인간”인 자신에 비해 “사랑을 빼고 보면 그의 입장은 무한하게 컸다.”(p.86)는 민족적 차이에 대한 자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자각 때문에 마려는 선풍 오야마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한 마려를 보면서 오야마 역시도 민족적 거리감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 일본인과 만주인을 분명하게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생각을 ‘콤플렉스’라고 치워버렸지만 그건 짧은 생각이었다.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같이 녹아내리는 사랑의 과정에서조차도 민족이라는 관념이 강하고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체험했다.(p.88)

사랑의 과정에서조차 민족이라는 관념이 강하고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문제를 표면에 내세워 한설야는 무의식적으로 빚어내는 제국주의적 모방의 서사(제국주의 남성과 식민지 여성의 결합)로부터 거리감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은 오야마와 친구 하야시 가즈오(林一夫)가 사업을 하기 위해 만주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들의 사업은 단순히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려는 사업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야마는 중국인 처녀 마려를 만나 사랑하게 되지만 이미 정략혼인의 상대인 유키코와의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던 어느날 오야마 부자가 마적에게 납치당하게 되는데, 마려는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마적 두목과 교섭에 성공하여 이들을 구출해낸다. 살아난 오야마는 개척사업을 시작하지만 또다시 마적단과의 전쟁으로 큰 부상을 입고 생사를 헤맨다. 이제 의사가 된 유키코가 그를 간호하게 되고, 마려의 헌신적 사랑에 감동하여 그들의 사랑을 빌며 떠난다. 만주의 새일꾼으로 태어날 것을 각오하는 유키코의 편지에 감동하며 오야마와 마려는 새출발을 다짐한다.

줄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야마와 마려의 관계는 구원자와 구원 받는자가 뒤바뀌었다는 점이 전통적인 계몽서사와 다르다. 마려는 여자 대학을 나오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세련되고 명랑한 근대 여성”(p.45)이다. 그녀는 현명한 대처 능력으로 납치된 오야마 부자를 구원해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원자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그녀와 오야마의 관계는 대등한 위치로 바뀌게 된다. 계몽관계 역시도 일본과 중국의 위계관계가 바뀌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 여성과 중국 여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그러하다.

유키코는 원래 만주인을 미개하다고 경멸하는 전형적인 일본인이다. 오야마는 그런 유키코의 민족적 우월감을 비판하면서, “유키코. 인간은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라거나 가문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꼴볼견이죠.”(p.90)이라고 말한다. 또 일본 여성과 비

교하면서 일본의 여성은 너무도 약하고 예쁜 “소위 패배의 미”(p.158)를 지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기영의 『처녀지』와 비교해 보아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본 여성이 강인한 어머니로서 조선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제시되는 방식과는 다른 계몽적 위계를 만들어낸다. 식민지 중국 여성이 일본 여성의 계몽자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려의 “희생적이고 착한 마음씨에 감동받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p.156) 유키코는 만주 개척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쓸데없는 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륙에서 당신들의 일이 더욱 더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당신이나 하야시씨나 그 밖의 다른 분들의 존귀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서 기도 드리고 또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언가 대륙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과장된 말일지도 모릅니다만 저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p.163)

“일본인의 성격개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나 도장으로서는 대륙을 예찬하고 싶다”(p.160)는 서술이나 “앞으로의 시대를 짚어질 신일본의 성격은 반드시 대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p.160)한다는 서술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작품은 제국주의적인 일방적인 계몽이 아닌 상호 변화와 발전을 남녀관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이 일본의 오족협화 정신 등의 만주합병 정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계몽적 관계나 만주에 대한 일본인으로서의 남성 주인공들의 계몽

의식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계몽에 대한 비판이나 작가의 자의식적 거리두기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서사를 균열시키는 측면을 읽어낼 수 있다.

조선인과의 관계는 이 작품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몇몇 대목에서 징후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 우선 오야마의 친구인 하야시의 인물 설정이 그것이다. 하야시의 아버지는 만주 개척 초기에 만주로 와서 조선인복장을 하고 조선인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헌신했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사업이라는 것도 가난하고 미개한 조선인들을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계몽관계를 펼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인들을 원시인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조선 농민은 황량한 만주의 처녀지를 개척한 은인이었다. 그러나 장작림 2대에 걸친 학정과 가렴주구는 그들을 오늘날의 참상으로 밀어넣었다.”(p.63)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강인한 조선인들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을 반성하기도 한다. “당신이나 제가 생각했듯이 그들은 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비록 칼로 절개를 했어도 바로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컨대 우리들의 쓸데없는 걱정보다 인간의 생명이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p.166)라는 대목이 그러한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계몽관계도 오야마와 마려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방적인 계몽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6. 맺음말

민족주의와 젠더를 결부시켜 읽어냈을 때 계몽자 남성과 피계몽자 여성(혹은 구원자 남성과 구원대상인 여성)이라는 이분법은 단순히 여성 문제가 아니라 민족 혹은 인종의 위계에 대한 비유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작품은 민족간의 위계만들기가 젠더 관계를 통해 드러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일방적 계몽관계냐 혹은 계몽의 내용이 무엇이나 등등에 따라서 위계만들기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 작품들 모두 여성을 추상화된 범주로 만들고 경험적 차이들을 드러내지 못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라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동질성 때문에 자칫 제국주의 모방서사라는 동질성만을 강조하기 쉽다. 앞에서 분석한 세 작품은 특히 표면적인 서사로만 본다면 일제말 만주국의 정책 논리를 다루는 작품들로 제국주의적 논리를 모방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국의 남성(혹은 제국주의를 대리하는 남성)과 식민지 여성의 결합이라는 서사적 비유 형태도 제국주의적 서사와 닮아 있다. 그러나 내적 논리를 따져 보면 서로 다른 논리가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초원」처럼 권력적인 위계만들기가 진행되기도 하고 『치녀지』처럼 서사적 균열로 표면 서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한다. 또 「대륙」의 경우처럼 서사의 내용이 민족간 위계를 뒤바꾸거나 흔들어놓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해석하는 일이 식민지 시대 문학과 제국주의의 모방 서사와의 차이를 규명해내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유사한 서사방식일지라도 국경을 넘어 발화자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그 의미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재생산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롱과 패러디 혹은 서사의 균열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질성에 금이 가고 그 균열의 틈새에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틈새를 읽어내는 것이 식민지 시대 민족주의 문학에 대한 읽기가 동어반복을 넘어서는 길이라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만선일보』 영인본.

『20세기중국조선족 문학사료 전집 제5권』(연변인민출판사, 2001).

김재용 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역락출판사, 2003).

이기영, 『처녀지』 상·하(삼중당서점, 1944).

### 2. 단행본

김재용 외, 『재만주 재일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역락출판사, 2004).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 연구』(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8).

엘레인 김, 최정무 편,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박은미 옮김(삼인, 2001).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박종철출판사, 1999).

塚瀬進, 『滿洲國-民族協和の實像』(吉川弘文館, 1998).

Homi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Prasenjit Duara, "Of Authenticity and Woman: Personal Narratives of Middle-class Women in Modern Chin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June 2-4, 1995, Berkeley, California.

T. Denean Sharpley-Whiting, "Colonialism, Nationalism, and Fundamentalism: Liberating Algeria", *Frantz Fanon: Conflicts & Feminis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3. 논문

-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여성문학연구 제 7호, 2002.6).
- 김양선, 「식민 시대 민족의 자기구성방식과 여성」(한국근대문학연구 8호, 2003.10).
- 김영희, 「여성, 민족, 그리고 문학에 관한 몇 가지 단상」(여성문학연구 제9호, 2003.6).
-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한국여성학 10집, 1994).
-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실천문학, 2003.봄).
- 이선옥, 「우생학과 제국주의의 성정치」,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역락 출판사, 2003).
- 조운 W. 스콧,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성찰」, 배은경 역(여성과사회 13호, 2001 하반기).

## Abstract

**Creating Ethnic Hierarchies and Gender Politics**

Lee, Sun-Ok

This article interrogates how nationalist discourse and colonialist discourse often intersect despite their ostensible differences. One can argue that the binary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is the oldest and the most familiar rhetoric of difference, which can, in turn, naturalize the hierarchies between races, ethnic groups and nations. Therefore, both nationalist and colonial discourses have invested great efforts in incessantly defining and redefining femininity. Without successful manipulation of femininity, neither colonial project nor nationalist struggle could be legitimized.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 how pro-Japanese literatures differently defined femininity from anti-Japanese nationalist literatures. Among the pronationalist literatures, this old rhetoric of male-female hierarchy enabled Lee Ki-young's *Chonyoji* (virgin land) to legitimize the colonial ethnic hierarchy, and Han Chan-sook's *Chowon* (grassland) to symbolize imperialism as a savior. In contrast, reversion of gender hierarchy in Han Sul-ya's *Daeryuk* (continent) resulted in destabilizing ethnic hierarchy. By carefully examining subtle differences among these literatures, this paper aims to rethink the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colonialist and nationalist discourses.

**key words** : gender, nationalism, pro-Japanese novel, Manchuria.